

유전공학 **히루딘 양산법 개발**
녹 십 자 **장티푸스 백신 개발**
력 키 **죽염함유 치약 발매**

▲ 유전공학

抗혈전제인 헤파린의 대체 물질로 각광받고 있는 히루딘을 유전공학기술로 대량생산하는 방법이 유전공학연구소 대사공학연구실팀에 의해 개발됐다.

개발팀은 히루딘의 아미노산 서열을 토대로 유전자를 합성하고 이를 거머리의 효모 숙주세포에서 발현시킨후 세포체외로 분비시키는 방법으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유전공학연구소는 본연구팀이 얻어낸 히루딘의 생산수율은 세계적 수준이며 국내 제약업계 및 러시아의 NPO생물공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히루딘은 거머리에서만 미량으로 추출되는 희소단백질로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대량생산법을 연구해 오고 있는 물질이다.

히루딘은 심장혈관계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혈관이 다시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고 인공장기의 표면 코킹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 향후 의학적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 녹십자

장티푸스백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연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국가 방역사업에 기여하게 됐다.

(株)녹십자 종합연구소 申光淳박사팀은 9일 Vi항원을 정제, 종래 백신보다 부작용이 적고, 1회 접종만으로 높은 항체를 얻을 수 있는 장티푸스 백신(상품명 타이프박스주)을 6년만에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장티푸스백신은 제일제당에서 프랑스메리오社 제품을, 동진제약에서 스위스베르니社 제품인 경구용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 렉키

주식회사 렉키는 충치예방 염증치료 지혈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竹鹽을 함유한 「렉키죽염치약」을 새로 개발, 시판을 시작했다.

5년여의 연구끝에 개발된 이 제품은 예로부터 민간요법에 사용되던 죽염을 치약에 포함시켜 잇몸의 만성염증 출혈 등 치주조직의 염증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도록 고안됐다.

또 입시론아미노카프론산과 죽염의 작용으로 섬유소용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 잇몸출혈

을 방지해주며 잇몸의 퇴축으로 인한 시린이 증세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 現代電子

現代電子는 최근 와이드 줌이 내장된 전면급지방식의 공간절약형 복사기(모델 HS-7800)를 개발, 오는 6월 양산 및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제품은 와이드 줌 내장으로 50% 축소에서 2백% 확대까지 배율조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며 전면급지방식의 카셋 채용으로 설치공간을 줄였다.

또한 원고양태 판단용전자자동노광방식의 센서가 내장되어 원고의 상태에 따라 농도가 자동조정되며 형상 유니트 교환만으로 적색·청색·갈색·녹색 등의 단색 컬러복사가 가능하다.

분당 15장의 복사 속도, 99장까지의 연속복사, 중간 색조의 원고도 선명하게 재현하는 사진복사기능, 검은 바탕의 원고도 선명하게 복사하는 하이파이현상방식, 기계적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자기진단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가격은 시판시 결정할 예정이다. <♣>